

# 불상에 생명력 넣는 '불복장'... 의식 아닌 문화유산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 8월 6일 아리랑 TV서 방송



불복장 의식 전 과정을 담은 아리랑TV 다큐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가 8월 6일 전파를 탔다.

불복장이란 점안될 불상의 내부 공간에 넣는 유물 또는 이를 넣는 의식을 가리킨다. 단순한 조형물에 지나지 않는 불상에 갖가지 문서와 곡식 등으로 부처님의 5장 6부를 만들어 넣어 생명, 신성(神性)을 불어 넣는 것으로 중국, 일본에서도 불복장 의식

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 의식이 사라졌고 현재는 티베트와 한국만이 불복장 의식의 맥을 잇고 있다. 불복장은 비밀리에 행해져 왔다. 불상을 모시고 점안식 전날 쯤 사찰의 스님들과 복장의식을 집전하는 스님들이 모여 비공개적으로 행해 왔다. 불

상에 생명을 불어 넣는 신성한 의식이기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관례다.

불복장 의식 전 과정을 담은 아리랑TV 다큐멘터리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가 8월 6일 전파를 탔다. 담당 최한영 PD는 "불복장 의식을 주관하는 태고종 수진 스님과 경남 창원 반야사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복장품을 불상에 넣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불복장의 의식 전 과정을 카메라에 영상으로 담은 것은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미를 전했다.

불복장 의식은 무엇보다 사찰 주변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부처님의 영혼을 모시는 자리인 만큼 사찰과 그 주변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청정해야 한다. 그리고 오곡, 오향, 보석 등 70여가지의 복장품과 부처님의 사리를 넣어 부처님의 목소리가 울림한다는 후령통을 제작한다.

그리고 시주자들의 발원문이 적힌 경전과 율가 등 다양한 복장품과 함께 불상에 넣게 되는데 이때 불상에 복장품을 넣는 광경은 일반인들과 다른 스님들의 참관이 금

지되어 있다. 이러한 불복장 의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점안식 이전에 행해지는 의식으로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당시 제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나누어 탑을 세우면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도입된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부인에게 성역인 불복장 의식 전 과정 카메라에 담아 방영 국보 40%가 복장 유물서 출토 양호한 보존 상태 '오향' 때문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불복장 의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불복장 의식을 단순히 불교의식의 하나로 보지 않고 한국의 문화유산적 가치로 접근했다. 왜냐하면 불상 안에 복장품이 갖는 문화적 가치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되어 있는 국보, 보물 중의 40% 가량



다양한 복장품을 정리하는 스님들(사진 위)과 진열된 복장품.

이 바로 불상 안에 들어 있던 복장품이었다. 뿐만 아니라 복장유물은 한국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는데, 경북 안동의 보광사의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는 고려 인쇄술의 절정을 상징하는 1천여점의 목판인쇄물인 보현인다라니경이 발견되었고, 순천 송광사의 관세음보살상에서는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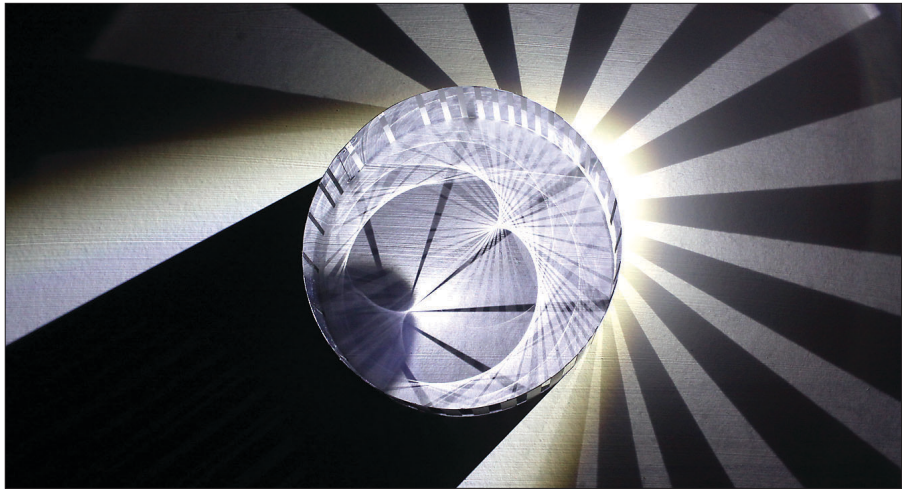
선시대 직물을 연구할 수 있는 옷감과 직물 조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불복장 유물은 수백년, 천년이 지나도 다른 유물들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연 무슨 이유에서일까? 그것은 복장품 중 하나인 오향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 여기서 오향은 전단향, 침향, 정향, 울금향, 용뇌향을 합친 다섯가지를 의미한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넣었던 오향이 오늘날 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불상 내부에서 방출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복장유물들이 본래의 상태 그대로 보존가능했고 이것들이 오늘날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 PD는 "불복장의 의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복장 안에 출토된 귀한 보물들을 소개해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송광사 불복장 안에는 소현세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내용의 글귀가 나오고 삼원사 동자좌상에는 세조의 명주 적삼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조선시대의 류 연구에 도움을 주는 역사적 유물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 지혜 광명 빛의 예술로 피어난다

불자 작가 서현 전시... 14일~31일 파주 헤이리서



서현 작가의 '상실의 풍경', 빛을 이용한 설치물로 생성과 소멸의 불교적 내용을 담았다.

"마음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선을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수행을 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불화를 배우며 마음의 위안도 얻었죠. 그래서 제 작품을 통해 자성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을 작품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불자 작가 서현이 8월 14일~31일 경기도 파주 헤이리 갤러리 카페 더 잠미에서 전시를 갖는다. 서 작가는 겨울 같이 빛이 자연스럽게 반사 되는 설치물로 자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빛으로 보여준다.

반사체 이용한 설치물로 구도의 과정 빛으로 표현

의 경험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공백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것들은 비어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을 더 선명하고 답답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숨구멍이 된다. 비어있지만 그것으로 훌륭하다. 조금 비어있는 것이 가득 찬 것보다 더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그 때, 까만 구멍 같은 공백은 여전히 비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밝은 여백으로 변한다.

"비어있음의 힘을 알아채고 공백이 여백으로 변하는 상황을 빛으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빛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고이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 작업들은 많은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고인 빛들은 그들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아차린 작가는 이번 작업을 통해 그 빛이 드러나는 상황을 표현해 낸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빛을 통해 암흑과 공백 속에서도 자기 내부의 온기, 진동, 빛을 찾아가는 힘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곧 내 안의 부처를 찾아가는 길일 것이다. (031)945-2340 정혜숙 기자

## 백제 금동대향로 독립 전시공간 마련

국립부여박물관 8월 6일 재개관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구일회)은 1993년 개관 후, 20년 만에 박물관 특성화 사업으로 전시환경을 개선 8월 6일 재개관했다.

전시품으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287호)를 비롯한 국보 3점, 보물 5점 등 총 1,500여점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부여박물관 대표 유물인 백제금동대향로는 독립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백제 문화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집중 감상할 수 있게 연출했다. 이밖에도 신설된 정보 검색실과 각 전시실에는 부여 관련 정보, 유물, 유적 검색이 가능한 최첨단 정보 검색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전시 관람 중에 생기는 호기

심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새로운 전시기법과 다양한 시각매체를 활용하여 전면 개편된 상설 전시는 총 4전 시실로 나뉘어 '부여의 선사와 고대문화', '사비백제와 백제금동대향로', '백제의 불교문화', '기증으로 빛난 문화재 사랑'을 주제로 사비백제 관련 유물을 선보인다. 전시는 부여의 선사시대부터 고대문화의 살피볼 수 있는 1전시실을 시작으로 사비시기 생활문화, 정치행정, 종교의례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2전시실, 백제인의 우수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불상'과 '사찰건축' 관련 유물이 전시된 3전시실, 박관식 교수를 비롯한 50여명의 뜻



백제 금동대향로

있는 기증자들의 기증품이 전시되어 있는 4전시실로 구성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자명 스님 3집 '아제아제 바라아제' 발매

자명 스님이 세 번째 음성공양집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발표했다. 자명 스님의 간절한 기도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음반에는 빙하차, 어디로 가야하나, 음마니 반떼홀 등 12곡이 실렸다.

자명 스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꼽으라면 음악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불법의 흥포에도 음악을 비롯한 문화가 가진 역할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일상의 언어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스님은 취지를 전한다.

자명 스님은 그동안 스스로 문화공양주를 자임하며 명류붓다콘서트와 뮤지컬 천도재 '니르바나'를 기획, 제작하여 서울 무대에도 올리는 등 다양한 문화불사를 행하고 있다. 9월 중 서울에서 찬불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음반발매와 함께 전국 108



아제아제바라아제 앨범 표지

도량을 순례하는 '찾아가는 명류붓다콘서트'도 연다.

정혜숙 기자

www.hyunbulshop.com

##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X 세로 6cm X 두께 2cm + 4GB 불경SD카드 + 이어폰 + 1200AM 배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이담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에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의)

□ 정현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하침의 기도  
3. 가나 평안을 위한 기도  
4. 뱀마 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정현 염불  
10. 내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 때는  
14. 여름 별레는 겨울이 있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오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한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계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해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계  
30. 법성계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찬불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발무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찰서원  
43. 신화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길로법을 전하지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파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약장  
53. 관세음보살 2약장  
54. 개경계  
55. 이상정명분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